

한국의 기부자 50인, 꾸준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더기버스50' 기부자 선정 완료

'한국의 기부자들: The Givers 50'(이하 더기버스 50)의 다섯 번째 명단이 16일 공개되면서 올해 더기버스 최종 50인이 모두 선정됐다. 5차 명단에는 김연숙·김임정·로선김·박지민·윤길중·이경렬·이혜나·조복순·최서우·최승주 등이 이름을 올렸다.

'더기버스50'은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기부를 꾸준히 이어가는 기부자를 조명하는 프로젝트다.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와 비영리단체들이 함께하는 민간 주도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 '파이워크(Pie Week)'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최종 50인 명단은 파이워크 공식 홈페이지(pieweek.thebutte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2025 파이워크' 캠페인에는 23개 비영리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제구조위원회, 굿네이버스, 굿피플, 기아대책, 대한사회복지회, 밀알복지재단, 바보의나눔,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사랑의달팽이, 세이브더칠드런, 열매나눔재단,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초록우산, 컨선월드와이드, 케이와이케이파운데이션, 플랜인터내셔널코리아, 한국컴패션, 한국해비타트, 함께일하는재단, 함께하는사랑밭, 홀트아동복지회(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기부하려고 열심히 돈 벌니다"

김연숙 기부자
아프리카 현지 봉사에 우연히 동행한 게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김연숙 기부자는 **기아대책**에서 제공한 이름이 새겨진 조끼를 입고 처음으로 해외 봉사 활동에 나섰다. 당시 '내가 이 현장에서 쓰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2018년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필란트로피클럽에 가입했다. 우간다 수자원 개발을 후원한 게 시작이었다. 현지를 다시 찾았을 때, 직접 설치된 우물을 보고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가슴이 벅찼다"고 한다.

김연숙 기부자는 "돈이 있어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기부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1억원 기부를 약속하고, 이를 납부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한다고 설명했다. "기부도 소비처럼 지르고 나면 감당하게 됩니다. 시작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암 보험금으로 지은 탄자니아 식수대

김임정 기부자
김임정 기부자는 7년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과 제주로 내려갔다. 도시의 분주함이 사라진 자리를 공부와 봉사로 채웠다. 월요일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를, 화요일엔 미술사 공부를 하고 수요일엔 수어 수업을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절망을 오래 붙잡는 대신 버킷리스트를 떠올렸다.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는 꿈이었다. 그동안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조금씩 돈을 모아온 참이었다. 암 보험금 2000만원에 가지고 있던 돈을 조금 더 보태 **월드비전**에 기부했다. 깨끗한 물이 부족했던 탄자니아 레이크아시 지역의 무르스 초등학교에는 새 식수



그래픽=문유비

대가 설치됐다. 이후로도 성탄절마다 무르스 초등학교에 필요한 선물을 보낸다. 건강도 나아지고 있다. 김 기부자는 "나누는 순간 행복이 찾아왔다"며 "암 진단을 받은 후 삶이 더 깊고 풍성해졌다"고 말했다.

'달리기'로 확산하는 선한 영향력

로선김 기부자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누군가의 헌신으로 지켜진 나라잖아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달립니다."

로선김(가수 선) 기부자는 2020년부터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 마라톤을 진행하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815런'에는 역대 최다인 1만9450명의 러너가 참여했다. 모금액은 총 23억4800만원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을 짓는 데 사용된다. 삼일절에는 '3.1런', 현충일에는 '6.6걷기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화보 수익금 기부, 국내외 아동 후원,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왔다. 누적 기부액은 약 65억원에 달한다. 지난

봄에는 기부금과 사비를 보태 루게릭병 환우들을 위한 영양병원을 직접 개원하기도 했다.

BTS 지민 삼부자(三父子)의 선한 영향력

박지민 기부자
BTS의 멤버 지민은 아버지, 남동생과 함께 **초록우산**의 고액후원자 모임 그린노블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위기가정 아동 지원,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등 여러 사업에 1억원을 기부하며 2021년 클럽 회원이 됐고, 이듬해 아버지가 초록우산 인재양성 지원사업 후원에 참여하면서 그린노블클럽에 가입했다. 최근에는 남동생이 군 전역 후 합류하면서 가족의 나눔이 이어졌다.

지민의 기부는 부산 지역에서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 음악가로서의 영향력을 나눔과 연결해 팬들과 함께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위기가정 아동들의 눈을 고쳐준다

윤길중 기부자
광주광역시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윤길중 원장은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안과 검진과 치료를 이어오고 있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기도 하고, 직접 지역의 시각장애인 학교나 복지시설을 찾아가기도 한다. 2020년에는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가정 아동의 안구 질환 치료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봉사를 이어오던 그는 의료 봉사만으로는 손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시작했다. 윤 원장은 굿네이버스 고액기부자 모임인 '더네이버스클럽'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위기가정 아동을 위한 장학금과 생계비를 지원했다. 3년 전 모잠비크 아동 33명과 일대일 결연도 맺었다. "앞으로도 자폐 아동, 교육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폭넓은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쌓아온 10년의 나눔

이경렬 기부자
2015년 9월, 첫 딸이 태어났다. 이경렬 기부자는 딸의 인생에 좋은 일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 이름으로 정기후원을 시작했다. 막상 해보니 꽤 뿌듯했다. 아내 이름으로도 후원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후원의 범위와 금액을 조금씩 넓혀갔다. 5년 전에는 **함께일하는재단**을 통해 새로운 나눔을 시작했다. 결식, 교육 공백 등 저소득층 아동 문제를 부모 일자리 지원으로 해결하려는 재단의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현재는 매달 36만원을 가족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증액하는 것이 목표다. "5만원을 기부하면 50만원 어치의 기쁨이 생깁니다. 앞으로 월 100만원까지 기부금을 늘려가고 싶어요."

주변의 동참으로 완성된 '기부 포트폴리오'

이혜나 기부자
자산관리사로 일하는 이혜나 기부자는 2017년부터 매월 5만원씩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장애아동 치료비를 후원해 왔다. 2020년에는 자신이 설립한 자산운용법인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그해 12월 500만원 기부를 시작으로 후원금을 점차 늘렸다. 이듬해에는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후원자 모임 '밀알복지재단 컴패니언클럽'에 가입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9만 명이 넘는 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부 소식을 공유하며 다른 이들의 참여도 이끌고 있다. 직접 쓴 자산관리 서적의 인세 전액을 기부했고,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 시청각 장애인 거주 시설 '헬렌켈러체험홈' 개소를 위해 고객들과 함께 약 2000만원을 모아 밀알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이 기부자는 "금액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며 "기부를 통해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 자체가 즐겁다"고 말했다.

문일요·최지은·박선하 더버터 기자

» 2면 '더기버스50'로 계속

2025 파이워크 참여 기관



중앙일보 공익섹션 더버터(The Butter)

- 취재팀: 김시원 편집장, 문일요 취재팀장, 최지은·박선하 기자
- 공익사업팀: 이영은 매니저, 박찬주 인턴
- 문의 및 제보: hello@thebutter.org, 02-3789-7861

» 1면 '더기버스50'에서 계속

종로 시래기국밥집의 기부 이야기

조복순 기부자

서울 종로5가, 허름한 골목에 자리한 '홍천막장시래기국밥'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된다. 조복순 기부자는 매일 같이 시래기를 씻고, 국을 끓이며 손님을 맞이한다. 국밥 한 그릇에 4500원이다. 그가 지금 자리에 가게를 연 건 2017년. 빛을 갖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400만원으로 다시 시작한 일이다. 그는 "우연히 임대료가 낮은 자리를 구했고 중고로 필요한 물품을 하나씩 장만했다"며 "그해 **바보의 나눔**에 기부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때 영업이 좋지 않아 재단에 기부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렇게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걸어 기부를 재게했다.

조복순 기부자는 매년 경찰의날이면 경찰관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대접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국밥을 나눈다. 그는 "내가 가진 작은 것에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큰 것을 줄 수 있음에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

빛을 잃고도 세상을 비추는 나눔의 삶

최서우 기부자

20대 초반 군에 입대한 최서우 기부자는 뇌혈관에 선천적 기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치료를 시작했지만, 반복적인 방사선 치료와 수술 부작용으로 시야는 점점 좁아졌다.

평소 기부에 관심이 많던 최 기부자는 제대 후 다양한 기관에 기부를 시작했다. 2012년부터는 **대한사회복지회**를 통해 아동 결연 기부를 했다. 건강이 나빠져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땐 후원처를 조금 줄이기도 했지만, 아동 후원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명절·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에는 선물금도 수시로 보냈다. "한 아이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제가 덜 먹고 더 이야기면 되죠."

지 지난해에는 건강이 악화해 최종적으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이듬해 취업에 성공했다. 바로 추가 후원을 시작했다. "아이들이 스무 살이 될 때까지 도와주고 싶어요. 아프지 않고, 밝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죽음학 연구자가 선택한 유산기부

최승주 기부자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고려대 문화창의학부 초빙교수이자 죽음학 연구자인 최승주 기부자는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매달려왔다. 그가 탐구하는 죽음은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자 실천이었다. 최승주 기부자는 **기아대책**의 유산기부자 모임인 '헤리티지클럽'에 가입하면서 재산의 일부를 기부로 약정했다. "이제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생각해요. 생애 전환기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했고, 그 결론이 기부입니다."

그는 자녀를 셋 두고 있다. 기부는 아이들에게 남기는 또 다른 방식의 유산이다. "제가 죽음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연대예요. 결국 사람은 서로 돌보고 연결돼야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가치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초고령사회, 환희인가 비극인가”... 아시안 문제비티 포럼 개최

오는 11월 1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5 아시안 문제비티 포럼(Asian Longevity Forum, ALF)'이 열린다. 문제비티는 사전적 의미로 '장수'를 뜻한다. 단지 노년기가 길어진다는 의미를 넘어 인류의 생애주기 전체가 연장된다는 뜻을 갖는다.

더버티가 주최하는 'ALF 2025'의 주제는 '초고령사회, 환희인가 비극인가'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일본·홍콩·태국·대만 등 아시아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아시아 고령친화 사회 구축 연구 보고서' 결과를 최초로 발표하며, 각국의 정부·재단·기업·학계·스타트업 등 전문가 200여 명이 모여 고령사회의 전환점을 모색한다.

포럼은 김시원 더버티 대표의 환영사와 함께 시작된다. 이어 주형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진행한다.

기조강연은 홍콩의 싱크탱크 CAPS의 루스 샤피로 대표가 맡았다. 그는 '노년을 재정의하다: 아시아에서 찾은 장수사회의 해법들'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장수사회 해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아시아 세션은 장희수 CAPS 어드바이저의 '아시아 6개국 고령친화 사회 구축 보고서 발표'로 시작된다.

텐 관관 중국 CAJ 시니어케어 상임이사는 중국의 기부와 투자가 장수산업에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 분석한다. 홍콩의 아이린 소 저산재단 상임이사는 고령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홍콩 재단들의 협력 모델에 대해 이야기한다. 태국 사회적기업 치와밋의 리아라타나 랑싯풀 대표는 '존엄한 노년'을 확산하는 사회적기업의 실험에 대해 발표한다.

전문가 발표 이후에는 '장수사회를 위한 민간자본의 역할'을 주제로 30분

간의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2부는 한국 전문가 세션으로 채워진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자는 어떻게 한국 사회의 동력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고령자가 우리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최문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노인에 대한 공감 없이는 기술도 없다'는 제목으로 기술이 노인을 돕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 전체의 인식과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어 김문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연결되고 기여하고 싶은 고령자들'이라는 주제로, 공익법단체 두루의 임성택 이사장은 '장수사회, 평등한 삶과 존엄한 죽음'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 세션의 패널토론은 '연령차별주의에 맞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김시원 대표가 모더레이터로 나서 네 명의 발표자와 함께 연령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문화적 해법을 논의한다.

3부는 주제 세션 두 개로 구성된다. 세션1은 '장수사회, 돈의 재발견', 세션2는 '에이지테크, 기술이 바꾸는 장수사회의 생태계'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김시원 더버티 대표는 "이번 포럼은 고령화 문제를 '복지'가 아닌 '혁신'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아시아 최초의 국제 포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포럼 참가 신청은 16일부터 ALF 홈페이지(alf.thebutter.org)에서 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아시아 6개국 고령친화 사회 구축 보고서' 요약본이 제공된다. 자세한 문의는 ALF 사무국(02-3789-7861~3)으로 하면 된다.

문일우 더버티 기자

2025 아시안 문제비티 포럼(ALF)

(11월 10일, 서울 양재 엘타워)

10:00-10:05	환영사	김시원 더버티 대표
10:05-10:10	축사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10:10-10:30	기조강연	노년을 재정의하다: 아시아에서 찾은 장수사회의 해법들 루스 샤피로 CAPS 설립자 겸 대표 ★
10:30-12:00	아시아세션	아시아 6개국 고령친화 사회 구축 보고서 발표 장희수 CAPS 어드바이저
		중국의 기부와 투자, 장수사회를 겨냥하다 텐 관관 CAJ Senior Care 상임이사 ★
		고령화에 공동 대응하는 홍콩 재단들 아이린 소 저산재단 상임이사 ★
		'존엄한 노년'을 확산하는 태국 사회적기업 이야기 리아라타나 랑싯풀 치와밋 대표
	토론	장수사회를 위한 민간자본의 역할 장희수, 루스 샤피로, 텐 관관, 아이린 소, 리아라타나 랑싯풀 *모더레이터
12:00-13:00	점심식사 (제공)	
13:00-14:30	한국세션	고령자는 어떻게 한국 사회의 동력이 되는가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노인에 대한 공감 없이는 기술도 없다 최문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
		연결되고 싶고 기여하고 싶은 고령자들 김문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장수사회, 평등한 삶과 존엄한 죽음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
	토론	연령차별주의에 맞서는 사람들 김시원, 이철희, 최문정, 김문정, 임성택 *모더레이터
14:30-15:00	휴식 및 자율 네트워킹	
15:00-16:00	주제세션1	장수사회, 돈의 재발견
16:00-16:10	휴식	
16:10-17:10	주제세션2	에이지테크, 민간협력이 만드는 새로운 생태계
17:10-18:00	네트워킹 및 폐회	

기후위기 팝업 전시 28일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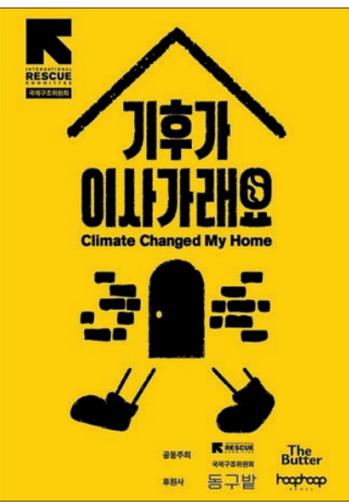
국제구조위원회 사진전

국제구조위원회(IRC)와 더버티가 오는 28일부터 9일간 서울 성동구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 아트스탠드에서 기후위기 팝업 전시 '기후가 이사가래요(Climate Changed My Home)'를 개최한다. 후원사로 흡흡베이글·동구밭이 참여한다.

전시에서는 국제구조위원회가 활동하는 전 세계 기후위기 현장의 사진과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기후변화로 강제 이주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실제 쉼터를 재현한 '몰입형 공간'에서는 기후위기를 간접 체험할 기회도 마련된다. 국제구조위원회의 '기후회복력 솔루션'을 소개하는 챗터에서는 기후위기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삶을 재건하는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다.

전시 이틀차인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국제구조위원회 직원이 직접 해설하는 '도슨트 투어'를 들을 수 있다.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두 차례 진행된다. 투어 종료 후에는 서울숲 일대에서 열리는 플로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기후 행동에 직접 나설 수 있다.

이은영 국제구조위원회 한국 대표는 "기후위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도전이며, 그 속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 시민 모두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사전 예약 시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exhibition.rescue.or.kr/climate)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지는 더버티 기자**

편집장 칼럼

다르게 부르기



김시원 더버티 편집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육원 퇴소 청년을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렀다. 종료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인상과 단절의 뉘앙스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보육원 퇴소 청년들은 여전히 사회가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말로 대체됐다. 명칭만 바뀐 게 아니라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와 정책도 함께 마련됐다. 가장 빠르게 가장 성공적으로 전환된 용어가 아닐까 싶다.

이름이 바뀌면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달라진다. 차별과 편견, 혐오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노숙인을 '홈리스'로 불러야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노숙인은 거리에서 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낙인어'다. 홈리스는 집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중립적인 표현이다. 언제든 누구든 다양한 이유로 홈리스가 되기도 하고 홈리스에서 벗어나기

도 한다. 정책의 방향도 달라진다. 노숙인 정책이 '사람'을 관리하고 보호한다면 홈리스 정책은 '삶'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이름은 인식·태도·정책의 차원을 넘어 사회의 패러다임이나 담론을 바꾸는 역할도 한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결정하고 구성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에이지즘(Ageism, 연령차별주의)을 해결할 방법도 이름에서 찾을 수 있다.

초고령사회를 '장수사회'로 바꿔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초고령사회는 고령자가 지나치게 많은 사회를 말한다. 위기·부담·부양·쇠퇴 등 부정적 이미지가 필연적으로 따라붙는다. 반면 장수사회는 인류의 생애 주기 전체가 길어지는 사회, 오래 살게 되는 사회를 뜻한다. 영어로는 문제비티(Longevity). 나이가 들수록 정의를 면 에이이지즘은 약화된다.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갑자기 바꿔 부르기 어렵다. 노숙인을 '홈리스'로, 초고령사회를 '장수사회'라고 부르려면 의도와 결심이 필요하다. 원하는 세상을 얻으려면 그만한 에너지가 든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기술을 꿈꾸다

혁신을 만나다

윤석원 에이아이웍스 대표

에이아이웍스(AIWORKX)는 경력단절여성·발달장애인·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AI기업’이다.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는 표현은 이제 쓰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만난 윤석원(53) 대표는 “취약계층이라는 말 자체가 편견”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의 약점이 아닌 강점에 집중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직원들은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요. 반복적이고 세밀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라벨링’에 특화돼 있죠. 데이터 라벨링으로 시작해 소프트웨어와 모델을 테스트하는 고난도 작업까지 하게 된 발달장애 직원도 있어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회사가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회사가 설립된 건 2015년. 올해로 10주년이 됐다. 4명이던 직원 수는 170명을 넘어섰고 기업가치 1000억원을 인정받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윤석원 대표가 에이아이웍스 10년의 여정을 담은 책을 썼다. 책 제목은 ‘콜링(Call)’. 소명이라는 뜻이다.

기회를 주고 싶어서

-원래부터 창업 생각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쳐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며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죠. 2015년 여성인력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소프트웨어 테스터’로 양성하는 강의를 개설했다면서 강의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해왔어요. 일자리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IT 전문가로 키우고 취업까지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죠. 평일 오전 강의라 회사에 다

니면서 병행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퇴사하기로 했어요.”

-보통은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거절하죠.

“대기업에 일하면서도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었어요. 기술 그 자체보다는 기술이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경력단절여성을 IT 분야에 재취업시키는 프로젝트를 선택한 이유죠.”

15명의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200시간 강의를 했고 이 중 80%가 국제 자격증을 취득했다. 금방 취업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윤 대표는 직접 회사를 차렸다.

-창업이 보통 일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 까지 했던 이유가 뭔가요.

“미국에서 처음 취업했을 때의 경험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스타트업에 입사했는데 왜 제가 뽑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영어도 잘 못했구요. 대표님에게 날 왜 뽑은 거냐고 물었더니 ‘너에게 능력을 펼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한국에와 보니 미국보다 훨씬 차별이 심했어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창업했다?

“기술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경력단절여성처럼 시스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기술의 문턱을 낮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어요.”

경력단절여성을 ‘소프트웨어 테스터’로 양성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회사가 조금씩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MYSC 김정태 대표가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같은 교육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이미 덴마크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반복적인 작업을 지



지난달 30일 만난 윤석원 에이아이웍스 대표는 “시스템 밖에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사회적기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루해하지 않는 자폐인의 특성에 주목해 소프트웨어 테스트 교육을 하고 독일 대기업에 취업을 시킨 케이스죠.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명을 뽑아 교육을 진행했고 셋 다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나치지 않는 사람

-창업한 걸 후회한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만두고 싶었던 적 너무 많았죠. 경제적으로 힘들었고요. 초반에 투자자들을 만났는데 반응이 차가웠어요. 비영리로 해야 한다, 비즈니스가 안된다는 반응이었죠. 경력단절여성과 자폐성 장애인이 일하는 IT회사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투자도 받았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 있나요.

“생각나는 분은 김정태 대표님. 아시

겠지만 제가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정태 대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희 홍보를 다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동료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저희에게 처음 투자해 준 D3 주빌리파트너스의 이덕준 대표님. 진짜 좋은 투자자이자 멘토죠.”

연 매출 100억원을 넘어서고 직원 수도 100명을 넘어설 무렵 큰 고비가 왔다. 회사 시작 때부터 함께 했던 임직원과의 갈등, 번아웃, 스트레스가 겹쳐 병원에 실려 갔다.

-심각했네요.

“그때 30명 정도 되는 장애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반기에 한 번씩 하는 장애인 직원 부모 간담회에 참여했는데, 한 어머니가 제 얼굴을 살피더니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우리 아이가 20년 이상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주

세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어떤 분이셨나요.

“영화에 나오는 ‘홍반장’ 같은 분이였죠. 가난한 사람, 어렵게 사는 이웃을 보면 지나치지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기어이 해결책을 만드셨죠. 밥과 반찬을 나르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포장마차를 열어 주기도 했어요. 고통 받는 이들의 삶을 지키려 애쓰셨죠.”

-어머니를 닮으셨네요.

“영향을 많이 받았죠. 20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실종됐고 한 달 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상실의 경험을 통해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절망, 타인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게 됐죠. 그날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분들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책 제목을 ‘콜링’이라고 정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창업이란 그만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결국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결국 자기 안의 소명을 깨우는 과정이 아닐까요.”

에이아이웍스의 비즈니스는 진화 중이다. 테스트하는 회사로 시작해 AI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을 하게 됐고, 데이터와 모델을 검증하는 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사람처럼 상담하고 답변하는 AI 에이전트 사업까지 진행한다.

코스닥 상장도 준비하고 있다. 2027년 1분기 상장이 목표다. 윤석원 대표는 “이렇게 판을 벌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웃었다. “나날이 겸손해집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김시원 더버터 기자

예방에서 회복까지... 재난시대 기업 사회공헌의 새로운 전략

제3회 넥스트CSR포럼

‘제3회 넥스트CSR포럼’이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렸다. 더버터가 주최하고 디캡프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재난시대, 기업 사회공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기후변화로 수해·산불·가뭄 등 재난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기업 사회공헌이 어떻게 더 입체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지 솔루션을 찾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행사에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와 기업 재단, NGO 등 13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재난 대응의 솔루션을 가진 전문가들이 연단에 올랐다. 재난구호 전문 NGO 더프라미스의 김동훈 상임이사는 ‘반복되는 재난, 기업이 놓치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구호품과 기부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형태로 적시에 전달되는지 확인할 것 ▶장애인, 학대 피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구조의 필요성 ▶일상 회복과 공동체 회복까지 지원 범위를



‘제3회 넥스트CSR포럼’이 2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와 기업 재단, NGO, 스타트업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여했다. [더버터 포토]

확장할 것 등을 강조했다.

최용상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 공학과 교수는 ‘사회공헌과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만났을 때’를 주제로 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이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재난이 터진 후 대응하는 것보다, 재난을 예방하는 조치가 더 중요하다”며 “예방의 핵심은 ‘조기 경보’”라고 강조했다. 윤순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은 재난 현장의 다양한 자원봉사 사례를 소개했다. 윤 사무처장은 “자원봉사는 관계

를 통해 신뢰를 만드는 일”이라며 “자원봉사가 재난 피해자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욱 다양한 대상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부 패널토론에서는 기부금 풀림 현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들은 적절한 기부처를 찾지 못해 대형 단체에 몰아주듯 성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김동훈 상임이사는 “큰 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작은 단체가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에는 이들이 유기적으

로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모더레이터를 맡은 김시원 더버터 편집장은 기부 문화의 변화를 짚었다. 그는 “기부자들이 단순한 돈을 내었다는 것에 만족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는지,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재난 기부금을 낼 때도 기부받는 단체가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지, 솔루션을 가졌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2부에서는 ‘재난대응의 미래’를 주제로 기업 사회공헌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2부 첫 연사로 나선 나영훈 포스코홀딩스 사회공헌실 상무보는 ‘호주 재난대응 시스템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산불방재청(RFS)을 방문해 배운 자원봉사 중심의 재난대응 방식을 소개했다. 신재민 현대차그룹 CSR기획팀장은 ‘기후재난시대, 진화하는 기업의 사회공헌’을 주제로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 경험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재난 대응 사회공헌

은 기업이 가진 역량과 기술을 총동원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경주 KCOC(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인도적지원부장은 ‘대규모 재난에 공동 대응하는 해외 기업들’이라는 주제로 영국의 ‘DEC’, 글로벌 재난대응 플랫폼 ‘로지스틱스 에머전시팀’ 등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진 2부 패널토론에서는 재난시대 기업의 역할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패널들은 “재난은 한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협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나영훈 상무보는 “재난은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전개되며 대응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이슈”라며 “성공적인 공동 대응 사례를 축적하면 이것이 곧 ‘콜렉티브 임팩트’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원 편집장은 “재난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각자 대응하기보다 공동 대응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재대로 고민하고 방법을 찾는다면 내년 이맘때쯤에는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더버터 기자

“전 세계 100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일상의 기부자들 남도형 성우

남도형(42) 성우에게는 사진 앨범이 하나 있다. 지난 13년간 후원한 아이들 사진을 모아 둔 앨범이다. 전 세계 스물두명 아이들의 성장 기록이 모두 담겨있다. 표지엔 ‘내 아이들’이라고 적혀있다.

후원을 시작한 건 2012년이었다. 열악한 상황에 놓인 아프리카 차드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주는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맡았다. 녹음하면서 많이 울었다. 일을 마치고도 아이들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굿네이버스를 통해 차드의 다섯 살 소년 도우모윤 안토이네와 연결됐다. 매달 3만원 후원을 시작했다. 2006년 KBS 공채 성우로 데뷔한 뒤 프리랜서로 막 독립한 시기였다. 만원 한 장도 아껴 써야 했지만 매달 후원금을 부치고 1년에 한번씩 선물금도 보냈다.

남성우는 게임·애니메이션·예능 등 장르를 넘나들면서 점점 이름이 알려졌다.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쿠키런’과 애니메이션 ‘원피스’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블랙캣’, 예능 ‘흑백요리사’ 등의 더빙과 내레이션을 맡아 누구든 알만한 성우가 됐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기부도 늘렸다. 지금은 아프리카·아시아·남미 등 전 세계 12개국 아동 14명을 후원하고 있다. 결연이 종료된 아동까지 합치면 누적 22명을 키웠다. 지난 21일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열린 ‘굿네이버스 레이스 with 핑크어스’ 마라톤 현장에서 재능 기부 사

회를 맡은 남 성우를 만났다.

후원으로 기른 22명의 아이

-기부를 시작할 때 목표가 있었나요.

“열다섯 명의 아이를 후원하는 게 목표였어요. 지금 14명이니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명은 어딘가 아쉽고 20명은 버거울 것 같아서 15명으로 정했는데, 이제는 한 명이라도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커요. 내년에는 20명을 채우고 싶어요.”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나요.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없지만, 첫 결연 아동인 안토이네가 조금은 특별하죠. 네 살이던 아이가 벌써 열일곱 살이 됐어요. 작고 어린 아이였는데 이제 체격이 다부진 청년으로 컸어요. 최근에는 키르기스스탄에 사는 다섯 살 여자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했는데 13년 전 안토이네처럼 정말 작아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되는 과정도 꼭 지켜보고 싶어요.”

-한 명 한 명 추억도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 사진과 손편지를 모두 모아 뒀어요. 사진은 앨범에 넣고 편지는 코팅해서 보관하는데 벌써 커다란 이삿짐 박스 하나를 다 채웠어요. 한번은 ‘저는 후원자님 덕분에 행복한데, 후원자님도 이 편지를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쓴 손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한창 힘든 시기였는데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울컥했어요. 제가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위로받은 건 저였어요.”

-선물금도 꼭 보낸다고요.

“매년 1월 1일마다 꼭 챙기는 작은 이벤트예요. 모든 아이에게 10만원씩 보내요. 처음엔 5만원을 보냈어요. 큰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나중에 굿네이버스에서 보내준 사진을 보니 그 돈으로 염소 한마리에 시멘트 한 포대, 옷, 빵, 우유까지 푸짐하게 샀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아끼면 되는 5만원이 한 가정에는 한 달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이후로는 한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받은 마음을 다시 전하다

-후원을 계속 늘리는 이유가 있나요.

“어머니가 호텔 룸메이드로 20년 가까이 일하셨어요. 늘 힘든 일을 하셨죠.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는데 어머니는 비싼 도넛을 종종 사 오셨어요. 그 도넛을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 투숙객들이 ‘감사하다’며 남기고 간 팁으로 사 오신 거였어요. 저는 그 나눔의 마음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인지 후원 아동들에게 어릴 적 제 모습이 겹쳐 보여요.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그 마음이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어요.”

-결연이 끝난 아이들이 그리울 때도 있겠습니까.

“결연 중간에 이사를 해서 후원이 중단된 아이도 있고, 만 18세가 지나서 종료된 아이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 18세면 다 컸다고 하기에 아직 어린



남도형 성우는 “기부를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며 “힘들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부를 이어오다 보니 어느새 삶의 좋은 습관이 됐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아이들이잖아요.”

-어떤 후원자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저를 꼭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기억한다면 제가 보낸 마음,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 애쓴 굿네이버스라는 단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남아서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이 가진 걸 나누어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해요.”

-앞으로 기부 계획은요.

“제가 이제 20년 차 성우예요. 30년, 40년 차가 되면 또 어떤 아이들과 소중한 인연이 생길지 기대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따라 기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팬들도 있고, 어머니,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도요. 언젠가는 전 세계에 10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싶어요.”

최지은 데버터 기자

몽골에 나무 심는 ‘기부러닝’ 3000명 한강 달렸다

‘굿네이버스 레이스’ 오프라인 런 현장

마라톤 대회가 러닝 열풍에 힘입어 세대를 아우르는 이벤트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최근에는 기록보다 달리는 행위에 의미를 더한 ‘기부러닝’이 주목받고 있다. 대회 참가비로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쓰는 식이다.

지난달 21일 서울 잠실 한강공원에서 ‘굿네이버스 레이스 with 핑크어스’ 오프라인 런이 열렸다. 이번 대회는 롯데카드 후원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러닝으로 기획됐다. 참여인원은 3000명. 참가비로 모인 기부금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몽골에서 숲 조성 사업에 쓰인다.

이날 오전 8시, 대회 시작을 1시간 앞두고 출발지 주변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몸을 풀고 있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온 쌍둥이 형제 한정우·한재하(12)군은 올해로 러닝 3년차다. 대회에만 10번 넘게 참여했다. 정우군은 “4학년 때부터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기본 전환도 되고 가족들과 함께 뛰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재하군은 “엄마보다 먼저 결승선에 들어와서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선씨는 직장 동료 장유리씨와 함께 10km 코스에 도전했다. 올해 4월 달리기 대회에 입문한 이후 출공 5km만 뛰었는데, 10km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기록보다는 완주가 목표”라며



“회사 옆자리 동료와 함께 뛰면서 더 멀리 달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장씨는 평소 비영리단체에 정기기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념일에 종종 기부하곤 하는데, 달리기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는 대회라고 해서 바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출발은 오전 9시. 잠실 한강공원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한강 라인을 따라 광나루까지 누빈 참가자들은 반환점을 돌아 다시 잠실공원으로 하나둘 도착했다. 이날 5km 부문에서 25분 만에 레이스를 마친 배예찬(31)씨는 결승선을 넘자마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휴일 당직이라 오후에 출근해야 하는데, 기부 레이스라는 좋은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시간을 냈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굿네이버스 기부자들도 참여했다. 10km 부문에 참가한 구연

호(68) 기부자는 지난 2003년 해외아동 결연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019년과 2022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조의금 2000만원을 각각 부모님 이름으로 기부했다. 지금까지 누적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굿네이버스아너스클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평소 마라톤 대회에 여러 번 참여했는데,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이번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오늘도 기록 시간에 맞춰 기부할 예정”이라며 웃었다.

굿네이버스는 이번 오프라인 레이스 행사와 함께 전국 어디서든 원하는 장소에서 기부러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베투얼 레이스도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각자 5만 보 이상 걷거나 뛰고 난 뒤 인증하는 방식이다. 베투얼 레이스에는 1차로 2000명이 참여했고, 11월

말까지 추가로 3000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대회로 조성된 기부금은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숲 조성에 투입될 예정이다. 몽골의 국토 대부분은 사막과 초원으로 이뤄져 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사막화 현상은 몽골 주민들의 가장 큰 위협 요소다. 유엔개발계획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막화 면적은 몽골 국토의 약 76.9%에 이른다.

현실적인 대안은 나무를 심는 일이다. 마른 땅에 나무를 심고 키우면 토지가 비옥해지고 숲을 이루게 되면 생태계 복원 효과도 있다. 몽골에서 연간 60건 이상 발생하는 모래폭풍을 방지할 수 있다. 모래폭풍은 유목민들의 가축과 게르를 빼앗고 한국의 황사에도 영향을 끼친다. 생존을 위협하는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숲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기



굿네이버스 레이스 대회 참가자들이 서울 잠실공원 출발선에서 신호와 함께 뛰어나가고 있다. 작은 사진은 11일 몽골 칭길테산에서 진행된 식수활동 현장. 이경호 기자, [사진 굿네이버스]

후위기 대응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도 진행한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11일 몽골 울란바토르 북서쪽에 있는 칭길테산(Chingeltei Mountain)에서 ‘굿네이버스 숲’을 개소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녹지 공간을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지역주민과 자치구 공무원 280여 명이 모여 소나무·가문비나무·인동덩굴·작약 등 총 3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전미선 굿네이버스 부사무총장은 “기부러닝 참가자들의 발걸음이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아동을 비롯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일호 데버터 기자